

“순찰부터 환경관리까지”... 이통3사, 자율주행 선점 치열

SKT AI 솔루션 전방위 적용 추진
 커넥티드카·UAM 등 사업 확대
 KT V2X 단말·인프라 기술 개발
 LGU+ 2026년 리빙랩 실증 참여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통신사들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역량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향후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SKT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AI(인공지능) 솔루션을 전방위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커넥티드카(통신망에 연결된 자동차)부터 도심항공교통(UAM)에 이르기까지 자율주행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울시 상암 지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구축을 마무리했다.

SKT의 자율주행 서비스 중 ‘AI 순찰로봇’은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선도업체인 뉴빌리티, 융합보안 서비스 전문회사인 SK윌더스와 손잡고 ‘자율주행 AI순찰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에 나섰다.

SKT의 AI 영상인식 및 전송기술을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이 도로노면청소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기술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라이드플렉스’의 자율주행 차량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뉴빌리티가 보유한 자율주행 로봇기술 및 원격관제 솔루션에 적용하고, SK윌더스의 보안 솔루션 및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AI순찰로봇 서비스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상용 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SKT는 뉴비에 자체 개발한 실시간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기술 및 비전AI 영상분석 기술이 탑재된 관제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야간 순찰용 저조도 360도 회전 카메라를 새롭게 장착했다.

KT는 C-ITS와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 ‘Smart V2X(차량사물통신)’을 준

비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V2X(차량사물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경량 OBU(차량탑재장치) 등 V2X 단말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도로 위 노면지국(RSU)과 네트워크를 사용해 도로 인프라 정보를 제공하는 V2X 인프라 기술도 개발 중이다.

KT는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선행사업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와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산단 구축사업자

로 선정된 후 사업 구축을 완료했다.

KT는 또 한 지자체와 대중교통용 자율주행 버스 구축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율주행 기반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협약을 완료해 협력사들과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수주한 자율주행 기반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연구개발은 24시간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차

량을 통해 도로 노면 청소, 미세먼지·공기 정화, 전염병 방역·소독 등을 수행하는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과 리텍, 라이드플렉스, 에이스랩, 스페이스인사이트, 쿠오핀, 아주대, KAIST 등 8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도시환경 관리 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디젤차 운행으로 인한 2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시기능 서비스 체계의 선진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돌발상황 발생 시 5G 기반 저지연 영상전송 기술을 활용해 즉시 대응 가능한 원격제어와 도로상황에 따른 배차·경로·배회 최적화, 주행이력 분석 등이 가능한 실시간 통합 서비스 관제 솔루션을 개발,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또 5G 통신에서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 차량 보안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사업의 핵심인 자율주행 차량 관제 시스템은 차량통신기술 표준화가 WAVE와 C-V2X 중 어느 쪽으로 진행돼도 연동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美 시장에서 ‘현대차·기아 RV 돌풍’ 분다

전년 비 15.2% ↑ 총 14.4만대 판매
 RV 차량, 전 차종 판매량 중 72.4%
 신타페·텔루라이드 가장 인기 끌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북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은 레저용 차량(RV)의 인기도 한몫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분기에 이어 4월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며 미국 시장 강자인 일본 브랜드 도요타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 모델인 RV 차량의 인기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4만 4874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14.9% 늘어난 7만 6669대, 기아는

15.5% 증가한 6만 8205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도 16.2% 증가한 5857대를 판매했다.

이같은 흥행 중심에는 RV 모델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그룹 IR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 1~4월 미국에서 RV 차량을 38만 1606대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수치다. 또 세단 등을 포함한 전 차종 판매량(52만대)의 72.4%를 차지할 정도로서 RV 차량의 인기를 짐작케 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기아의 차량 중에서 연간 기준으로 RV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71.3%를 뛰어넘어 ‘현대차·기아 RV 돌풍’이라 할 만하다.

현대차가 가장 많이 판매했던 모델은 신타페로 나타났다. 신타페는 지난 1~

4월 미국 시장에서 3만 9479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다. 기아는 텔루라이드가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었다. 미국 현지 공략 모델인 텔루라이드는 3만 5745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상승했다.

미국 자동차 매체인 KelleyBlueBook은 ‘2023년 최고의 가족용 차’에 현대차 아이오닉5, 신타페,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를 선정했다. 현대차그룹은 4종이 선정돼 각각 3종이 선정된 일본 도요타와 혼다를 눌렀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으로 전기차 분야에서는 좀처럼 힘을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2323대 팔렸고 기아 EV6는 1241대로 53% 줄었다.

/양성운 기자 ysw@

CJ대한통운, 靑-몽골 잇는 물류 영토확장

동영해운과 북방물류 공동개발

CJ대한통운이 아시아 3개국과 몽골을 잇는 북방지역 물류 영토확장에 나선다.

7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동영해운과 ‘북방물류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몽골 간 멀티모달(Multi Modal) 서비스를 활용해 아시아 3개국 고객에게 몽골 수출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멀티모달’이란 해상, 육상 등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복합운송이라고도 불린다.

양사는 CJ대한통운의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3개국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을 이용해 중국 신강항까지 해상운송한다. 이후 중국횡단철도(TCR)과 몽골횡단철도(TMGR)를 이용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육상운송하게 된



CJ대한통운 강병구 글로벌 부문장(왼쪽)이 동영해운 백승교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다. 여러 나라의 화물을 모아 규모화해 운송하는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운임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두 기업은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 북방지역 추가 운송경로와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화물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과정 일체를 전담해주는 엔드 투 엔드(End To End) 서비스 등 상생협력 관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캐딜락,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차 출시

‘얼티엄’ 기반 최초 모델 리릭



캐딜락 리릭 전면.

캐딜락이 올 하반기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차 리릭의 출시를 앞두고 스포셜 뉴스레터 구독자 모집을 시작한다.

리릭은 GM의 전동화 전략을 선도해 나가는 상징적인 모델로, 1912년 첫 전기 트럭 생산 이후 현재까지 GM의 112년 전기차 헤리티지가 집약된 첨단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ULTIUM)’을 기반으로 탄생한 최초의 모델이다.

북미시장에 먼저 공개된 리릭은 12개의 모듈로 구성된 102kW/h급 대용량 배터리와 듀얼 모터를 탑재한 사륜구동

(All-Wheel Drive, AWD)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최대 출력 약 500마력, 최대 토크 약 62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 캐딜락 자체 테스트 결과 완충 시 약 494km의 주행거리(북미시장 인증 기준)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리릭의 상징적인 블랙 크리스탈 그릴은 수직으로 배열된 슬림 LED 헤드 램프와 조화를 이루어 캐딜락의 차세대 브랜드 스타일링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화려한 라이팅 퍼포먼스를 통해 리릭만의 차별화된 EV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카카오, 다음 독자적 의사결정 조직체계 설립

(Daum)

검색·미디어 등 핵심 사업 중심 도약

카카오가 포털 다음(Daum)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CIC; Company in Company)을 오는 15일에 설립한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는 검색 및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서 다음 서비스의 가치에 더욱 집중하고 성과를 내고자 다음사업부문을 CIC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신속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

체계를 확립해 다음 서비스만의 목표를 수립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음 CIC는 검색,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기술 선도적 서비스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다음 CIC 대표는 황유지 현 다음사업부문장이 맡는다. /최빛나 기자 vitna@